전남도-농어업·농어촌특위, 미래 농정 대전환 모색

타운홀미팅…도, AX혁신 기반 등 6대 추진 방침 설명
농업인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등 건의

전남도는 27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남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전남도의 미래 농정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 전남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전라남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광주전남지회 등 전남 농업단체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고소득 미래 생명농업 육성'을 주제로 △전남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반 구축 등 미래 첨단 농업 육성 △농업생산과 정주기반 조성 △유통과 고부가 소득 기반 확대 △케이(K)-저탄소·친환경 농업 선도 △환경 친화 스마트 축산 육성 △동물질병 선제적 방역 대응 강화, 6대 추진 방침과 2026년 주요 농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김호 위원장과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농업인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소속 기관 신설, 케이-티(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전남도 타운홀 미팅이 중앙과 지방, 농업인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실질적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정부와 전남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무엇을 더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농업인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각종 위기에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도록 촘촘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7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남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전남도의 미래 농정방향을 공유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조정과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다. 김호 위원장과 기재부·농림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선관위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를"
5월2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선거 현수막' 게시 가능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있는 거리 현수막 등의 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고 표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재심도 '공천 불가' 결정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낮아졌지만, 지방선거 공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처분으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와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격정지 기간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치면서 강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강진군수 선거에는 강진원 현 군수와 함께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 4명이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강 군수와 오 전 차관보가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 천일염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산업 관계자·시군 등과 간담회…가격 하락 대응

전남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26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천일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천일염 산업 관계자와 학계,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생산업계와 관련 산업 전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격 하락 대응과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천일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천일염 수출 활성화와 수출용 제품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시 천일염 생산소득을 비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기 위해 건의하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천일염 산업 선봉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천일염 산업화 시책 등에 반영하는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기술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 활성화 T/F'를 구성해 천일염 산업 지원과 가격 하락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종욱 민노총광주본부장, 출판기념회 개최

31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이종욱 민주노총광주본부장은 오는 31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광주·호남의 비전을 담은 저서 '항해사 이종욱의 새로운 항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이 본부장의 자서전으로, 젊은 시절 세계의 바다를 누비던 항해사 시절의 에피소드부터 공무원이 돼 행정능력을 쌓고 다양한 활동을 쌓은 공직생활, 노동운동의 경험이 담겼다.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도 풀어냈다.

출판기념회는 이 본부장의 삶과 호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북 토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인회와 사진 촬영, 작가에게 한마디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산하 기자